

‘KIA맨’ 조상우, 가볍게 던져도 140km...“몸 상태 이상無”

스프링 캠프서 첫 볼펜 투구...직구·슬라이더 등 4개 구종 25구 피칭
신인 김태형, 직구·커브 등 20구 소화...2025시즌 막강 마운드 예고

KIA 타이거즈의 마운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원투펀치’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러에 이어 ‘새 얼굴’ 조상우와 김태형이 볼펜 피칭을 소화했다.

조상우는 지난 31일(미국 시간) 어바인 스프링 캠프에서 첫 볼펜 투구를 진행했다.

심재학 단장, 이범호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 볼펜 피칭에 나선 조상우는 총 25구를 던지면서 2025시즌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날 조상우는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 포크볼 등 4가지 구종을 던졌고, 직구 최고 구속은 140km를 기록했다.

예비 FA 조상우는 KIA가 연패를 위해 준비한 비장의 무기다.

FA를 통해 장현식을 LG로 내준 KIA는 지난 12월 키움 히어로즈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조상우를 영입했다.

KIA는 키움에 현금 10억원과 2026년 신인 1·4라운드 지명권을 내줬고, 대신 조상우의 경험을 얻었다.

2013년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넥센(현 키움) 유니폼을 입은 그는 프로 통산 9시즌 동안 343경기에 나와 419.1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자책점 3.11, 3승 25패 54홀드 88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다.

조상우는 2015·2019년 프리미어 12와 2020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그는 지난 시즌 복귀해 44경기에서 39.2이닝을 소화했다.

KIA는 ‘볼펜 마당쇠’ 장현식의 공백을 조상우로 메우게 됐고, 조상우도 올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게 되는 만큼 팀은 물론 개인에게도 중요한 2025시즌이 될 전망이다.

조상우는 “캠프 첫 볼펜 투구라 가볍게 던졌다. 비시즌 동안 운동을 꾸준히 해와서 몸 상태는 매우 좋다. 동료 투수들이 먼저 다가가 말도 걸어주고 코치님들께서도 두루 챙겨주셔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개막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첫 볼펜 피칭 소감을 전했다.

장재훈 투수 코치는 “비시즌 때 몸을 잘 만든 것 같다. 전체적으로 공에 힘이 느껴졌고 공의 움직임도 좋았다. 올 시즌이 기대가 되는 선수이고, 팀 볼펜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조상우의 피칭을 평가했다.

이번 스프링캠프의 유일한 신인인 김태형도 첫 볼펜 피칭에 나서 프로 도전을 시작했다. 김태형은 직구, 슬라이더, 커브를 섞어 던지면서 총 20개의 투구를 소화했다.

덕수고 출신인 김태형은 2025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가장 먼저 KIA의 호명을 받은 1라운드 선수다.

광주 서림초에서 야구를 시작해 화순중-덕수고를 거친 그는 고향에서 프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김태형은 186cm, 91kg의 건장한 체격을 갖췄으며, 최고 151km의 빠른 볼도 가지고 있다.

두드득한 배짱과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도 장점으로 꼽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키움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은 조상우가 미국 어바인 스프링캠프에서 볼펜 피칭을 소화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금 6개 목표” 쇼트트랙 대표팀, 동계AG 결전지 하얼빈으로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2일 결전지인 중국 하얼빈으로 떠났다.

윤재명 감독이 이끄는 쇼트트랙 대표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각오를 다진 뒤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난 윤 감독은 “금메달 6개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며 “선수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만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팀은 최고의 선수들로 전력을 꾸렸다.

남자 대표팀은 2023-2024시즌 세계랭킹 1위 박지원(서울시청)을 필두로 장성우(고려대), 김건우(스포츠토토), 개인 종목에 나서고 김태성, 이정수(이상 서울시청), 박장혁(스포츠토토)이 단체전에서 힘을 보탠다.

여자 대표팀은 에이스 최민정과 지난 시즌 세계

랭킹 1위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심석희(서울시청)가 개인전에 나서고 노도희(화성시청)와 이소연(스포츠토토), 김건희(성남시청)가 단체전 멤버로 뛴다.

지난달 제32회 토리노 동계 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에서 5관왕에 오른 김길리는 “이번 대회에서도 5관왕에 오르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다.

아울러 “토리노 대회를 마친 뒤 사차 적응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다”며 “하얼빈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대표팀은 현지 적응 훈련을 한 뒤 7일 예선전을 치르고 8일 혼성 2000m 계주, 남녀 1500m, 남녀 500m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9일엔 남녀 1000m, 남녀 계주 결승에서 금빛 질주를 이어간다.

한국 쇼트트랙은 이번 대회에 걸린 9개 금메달 중 6개 이상 획득을 목표로 잡았다.

한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홈 팀 중국의 견제를 극복해야 한다.

중국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딴 귀화선수 린샤오전(한국명 임효준)을 비롯해 헝가리 출신 귀화 선수인 사오린 산도르 류, 사오양 류 형제를 엔트리에 넣었다.

중국 여자 대표팀엔 ‘반칙왕’으로 잘 알려진 배태랑 판커신이 나선다.

윤재명 감독은 “중국의 뒷세가 예상되지만, 우리 선수들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 본진은 4일 출국한다. 대회는 7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14일 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

상복 터진 전남도체육회...대통령 표창 등 수상

전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가 지난해 다양한 분야에서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 유공자를 다수 배출했다.

도체육회는 최근 전남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정부 포상 전수식’을 거행했다. 이번 행사는 ‘2025 전남선수단 훈연 개시식’과 함께 개최됐다. 전남에서 펼쳐졌던 ‘제104회 전국체육대회(2023년)’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24년)’의 성공 개최에 크게 이바지한 총 31명의 체육인이 대통령·국무총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성실 도체육회 부회장과 박경재 행정지원본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조 부회장은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53회 전국소년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애임없는 지원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박 본부장은 대회 업무를 총괄하며 전반적인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과 정희진 도체육회 전 문체육지원부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강강원 도체육회 부회장 등 27명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이 돌아갔다.

또 2024년 전남체육진흥 역할을 다한 공로자들에게도 대한체육회장상, 전라남도지사상 등이 주어졌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회 활동 지원에 큰 역할을 한 김남식 도체육회 생활체육지원부 주임, 김양필 나주시체육회 차장, 손은주 광양공공스포츠클럽 사무국장도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체육회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2024년 생활체육동호회리그대회 우수리그’에서는 영암군배구협회가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쓴 공로로 전국 체육회 가운데 2위로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또 임호형 도체육회 홍보마케팅부 대리가 ‘전라남도지사상’을 받았고, 2024년 신나는 주말체육 학교 프로그램 우수강사에게 주어지는 ‘대한체육회장상’은 김유미(광양시체육회), 최영훈(영암군체육회), 김지수(장흥군체육회) 강사가 차지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다저스 등번호 6번’ 김혜성 “최고의 팀에서 우승했으면 좋겠다”

자선 행사 참여

김혜성(26)이 새로 택한 등번호 6이 박힌 유니폼을 입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마련한 자선 행사에 참여했다.

다저스는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로스앤젤레스(LA) 연구지 팬들과 만나고 소방서를 방문한 다저스 선수들의 모습을 올렸다.

김혜성은 블레이크 스넬, 테너 스콧, 제임스아우트먼 등과 함께 LA 어르신들을 만나 식사를 함께 하고 소방서로 이동해 소방관들과 시간을 보냈다. 김혜성이 LA 시니어 팬, 소방관들과 함께 사진

을 찍는 장면도 다저스 구단 SNS, 현지 매체 KTLA, 다저스네이션 등에 담겼다.

그동안 훈련에 매진하던 김혜성은 이날 행사에서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도 했다.

“내 이름은 김혜성, HyeSeong Kim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혜성은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이런 행사에 참여한 것 자체가 영광이다. 최고의 팀에 왔으니,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다. 다저스가 또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방서에서 한 인터뷰에서는 “LA에 굉장한 큰 산불이 났다는 걸 뉴스를 통해 들었다. 많은 소방관분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나아진 것

같다”며 “소방관과 만나 영광이다. 영광스러운 마음을 잘 간직해서 열심히 하겠다. 개막전에 나설 수 있게 준비 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혜성은 지난 달 4일 3년 보장 1250만달러(약 184억원), 3+2년 최대 2200만달러(324억원)에 계약했다.

1월 14일에 미국으로 출국해 개인 훈련을 시작한 김혜성은 2월 2일에는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팬페스트에도 참여했다.

김혜성은 16일에는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캐멀백엔지에서 다저스 동료들과 스프링캠프 첫 훈련을 치른다. /연합뉴스

최가은, 스노보드 월드컵 하프파이프 은

우승은 클로이 김

최가은(세화여고)이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은메달을 획득했다.

최가은은 2일 미국 콜로라도주 애스펜에서 열린 2024-2025 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88.75점을 받아 2위를 차지했다.

2023년 12월 미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따낸 최가은은 지난달 스위스 월드컵 동메달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월드컵 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8년생 최가은은 지금까지 월드컵에 네 차례 출전해 예선을 마친 뒤 연습 도중 허리를 다쳐 결선에 뛰지 못한 지난해 1월 스위스 월드컵을 제외하고 매 대회 시상대에 오를 만큼 세계 정상급 선수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이번 대회 금메달은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이종목 챔피언인 교포 선수 클로이 김(미국)이 차지했다. 클로이 김의 점수는 91.75점이다. 예선 2위였던 시미즈 사라(일본)가 85.25점을 받아 동메달을 가져갔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환희 : 양홍길 개인전

일시 : 2025-1-15(수) ~ 2025-2-16(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체임버 시리즈 I 'Cello Moments'

일시 : 2025-02-21(금)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문의 : 062-613-8241

